

# 교육청-지자체 합동워크숍, 3년 만에 재개

### 전북교육협력 추진단 구성·운영방안 등 공유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해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지자체 간 합동 워크숍이 3년 만에 재개됐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에서 '교육협력,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워크숍에는 교육청과 도청 시·군청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해 시군별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 강화 방안과 함께,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였다.

특히,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합동워크숍은 서거석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 중인 '전북교육협력 추진단' 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공유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전주시, 군산시, 남

원시, 임실군, 진안군 등의 교육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전주야호교육지원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지원 형태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자체와 협력으로 학생해의연수를 추진한 진안군 사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군산교육청 협력경험 등을 논의했다.

이대영 전북지역교육연구소 대표는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전국 많은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참여, 지자체의 지원, 교사들의 노력으로 폐교 위기에서 인기 학교로의 전환된 사례가 많다"며 "지자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진로체험교육, 협력과 소통의 학교운영,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교육 등이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윤근 익산시청소년수련관장은 "아이들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4차



26일 전주 왕의지밀 컨벤션에서 교육협력과 소통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합동 워크숍이 열렸다.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로 성장시키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은 키워야 한다고"고 지적했다. 서 교육감은 "취임 후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등과의 교육협력 강화에 온 힘을

다해왔다"며 "급식, 돌봄, 학생해의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협력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우석대, 3회 연속 행안부

### 재해구호 인력 양성기관 선정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형)가 3회 연속 행정안전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석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평생교육원을 중심으로 소방방재학과와 간호학과 등이 참여해 재해구호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교육한다.

교육과정은 △재해구호실무과정 △재해구호관리자과정 △재해구호자원봉사자과정 △재난심리회복전문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한 우석대학교는 올해 10월 말까지 1068명의 재해구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대내외 재난구호 교육의 내실을 다졌다.

남천형 총장은 "대내외 재난 관련 학과를 운영하며 우리 대학교는 지역의 재난 상황과 구호 문제에 있어 컨트론타워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구호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대, 해상풍력 기업 수요 기반

###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서 '대상'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22일 신안 리미티드프라이브 & 씨원 리포트 자은도에서 열린 해상풍력 기업 수요 기반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서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 대학원과 학부 학생팀인 WBT팀(박병수, 문유진, 박경수, 김태래, 김상규, 정효석)이 3상 단일전력단 컨버터 적용 고효율 풍력발전 전원장치로 이 상을 받았다.

해상풍력 기업 수요 기반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호남·제주권 7개 대학과 수요기업(CIP/COF, 덴마크)의 해상풍력 기업 수요 기반 공유협업 캡스톤디자인 공동 운영 협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 간 공유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참여 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과물을 전시해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에 해상풍력과 캡스톤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WBT팀의 지도를 맡은 김은수 교수(전기전자공학과)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 고3 맞춤 프로그램 진행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3일 교내 및 전주 메이커빌리지에서 고3 학생들을 위한 2022학년도 수능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산업정보고등학교가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이후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진로 및 취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3D 프린팅 기본 활용 △제과제빵 실습 △모의주식투자 실습 등 총 8개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들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 기회 제공, 전공의 실무습을 통한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덕현 단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문성을 갖춘 대학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기회와 장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첨단 바이오기술 美 전자제품박람회서 공개

### 송철규 교수팀 개발 '혈전탐지 이미징 시스템'

### 이학교 교수팀 개발 '저탄소 검증 플랫폼' 등

### 내년 1월 5~8일 라스베이거스 개최 'CES2023' 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2023년 1월 5~8일 미국 Las Vegas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 2023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2개의 혁신 기술을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송철규 교수



이학교 교수

효성과 정확성을 검증해 온 기술이다.

또한 저탄소 검증 플랫폼 기술은 세계 최초로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저탄소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지난 15년 간 800여 명의 국가 연구과제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기반 기술이다.

한편 이번 CES2023은 약 1000여 개의 신규 업체를 비롯해 총 2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한다. 참석자는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작년 대비 50% 커진 규모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솔루션, 드론, 메타버스, 바이오 헬스,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가전, 우주, 마린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 신기술, 신사업이 소개된다.

송철규 단장은 "이번 CES2023 출품은 대학보유 글로벌 IP 기반 혁신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글로벌 기술 마케팅과 투자유치의 일환"이라며 "기업가형 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호주 시드니에 한옥 짓는다

### 전북대, 시드니 코리아가든 문화재단과 협약 체결

### 한옥 살림집도 2채 수주, 내년 5월 한옥 전시도 열어

전북대학교 한옥이 호주에 진출한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는 최근 호주를 방문해 시드니 코리아가든 문화재단과 한옥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니 코리아가든은 한국전쟁에 참여해 희생된 호주 군인들을 추모하고, 한국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 시드니 일원에 희생 군인 추모비와 한국 전통 정자, 전통 공예, 교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북대가 맡게 된 것.

양 기관은 1차로 허버 브리지에 보이는 메모리얼 파크에 한국 전통 정자 1동을 건축하기로 했으며, 추후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정원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호주에 한옥 살림집 건축도 2채 수주했다. 여기에는 방과 대청, 찜질방 등이 들어가 한국 주거문화를 일필 기회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내년 5월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호주 교민축제에 초청돼 현장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송석준 시드니 코리아가든 문화재단 이사장은 "세계적 수준의 전북대학교 한옥이 시드니에서 한국전쟁에서 희생한 호주 군인들을 추모



송석준 호주 시드니 코리아가든 문화재단 이사장과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사진 오른쪽)이 한옥수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고 있다.

하고 우리 교민들이 동지를 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동원 총장은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전북대 한옥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호주 군인들을 추모하고 우리 교민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보람과 긍지를 느낀다"며 "대학 분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그간 베트남 퀴는

시에 한옥을 수출했고, 현재 필리핀에 K-Town을, 말레이시아에 한국전통정원, 미국 조지아주에 한옥마을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캐나다, 미국 등 10여 개국 20여 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한옥 수출을 주관하는 남해경 교수는 "전북대는 고창캠퍼스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한옥교육과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 K-HOUSING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학술림 활용 숲체험교육 '호응'

### 10월부터 434명 혜택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주덕진학술림(건지산)을 활용한 숲체험교육이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숲체험 교육은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도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숲의 보물찾기, 곤충아 놀자, 나무의사 딱따구리 6형제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모두 434명이 혜택을 누렸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숲 생태계 연결성을 깨닫게 하고 공동체 의식과 협력하는 자세 등을 체득할 수 있었다.

특히, 전북대는 이번엔 전주캠퍼스(사범대, 인문대, 본부)와 익산 특성화캠퍼스 내 수목에 표찰을 설치해 학생

과 대학 구성원, 지역민들이 수목에 대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현 학술림장은 "숲체험 교육은 대학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과의 공감을 통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숲 관련 행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 및 거점국립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전북 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

### 동신초 한예준·공동초 강민서

### 근영중 이은호 등 총 5명 수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2022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은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잠재력이 풍부한 과학·발명 분야의 우수 학생을 선발 육성하고, 과학·발명 꿈나무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과학교육 진흥에 기여하며 전북 과학·발명교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도내 초·중·고 학생 중 과학 및 발명 관련 대회 입상실적과 특허 관련 실적 등 2022년 한 해 동안 과학·발명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달까지 학교 추천을 받아 추천서류 심사 등을 거쳐



전북도교육청은 26일 5층 회의실에서 2022 전북학생과학·발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됐다. 수상자는 한예준(동신초), 강민서(익산공동초), 이은호(전주근영중), 이성훈(전북과학고), 김민찬(전북기계공업고) 등 총 5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학·발명 분야의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써 기초과학과 공학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키우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수상하는 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전북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